

이세희에 일침한 선우용여 "잘나간다고 막 나가지마"

등록 2026.01.14 06:26:09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배우 선우용여가 배우 이세희를 향해 겸손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우용여는 13일 방송한 JTBC 예능프로그램 '혼자는 못해'에 나와 전현무·이수지·추성훈·이세희와 함께 찜질방 데이트를 했다.

선우용여는 이세희에게 "너 요새 잘나가는 애라며"라며 "예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잘나간다고 막 나가면 안 된다. 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선우용여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내가 연기자 생활할 때 철칙이 시간 엄수였다. 나는 평생 알람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 철칙은 나 때문에 드라마 NG 나지 않는 거였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방이 감정을 잡았는데 내가 NG를 내면 감정이 깨진다. 난 그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켰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하며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선우용여의 눈물에 당황한 출연진은 "갑자기 울먹이시는 거냐. 물 좀 드리냐"고 했다.

선우용여는 "옛날에 고생했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다.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건강하게 재밌게 살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b@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